

The Gospel of Mark – Sermon Notes

Sermon 38

Title: “A boy is healed”

Scripture: Mark 9:14-29

Date preached: May 28th 2023

Scripture: Mark 9:14-29

14 And when He came to the disciples, He saw a great multitude around them, and scribes disputing with them. **15** Immediately, when they saw Him, all the people were greatly amazed, and running to *Him*, greeted Him. **16** And He asked the scribes, “What are you discussing with them?” **17** Then one of the crowd answered and said, “Teacher, I brought You my son, who has a mute spirit. **18** And wherever it seizes him, it throws him down; he foams at the mouth, gnashe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So I spoke to Your disciples, that they should cast it out, but they could not.” **19** He answered him and said, “O faithless generation, how long shall I be with you?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Bring him to Me.” **20** Then they brought him to Him. And when he saw Him, immediately the spirit convulsed him, and he fell on the ground and wallowed, foaming at the mouth.

21 So He asked his father, “How long has this been happening to him?” And he said, “From childhood. **22** And often he has thrown him both into the fire and into the water to destroy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23**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24** Immediately the father of the child cried out and said with tears, “Lord, I believe; help my unbelief!”

25 When Jesus saw that the people came running together, He rebuked the unclean spirit, saying to it, “Deaf and dumb spirit,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enter him no more!” **26** Then *the spirit* cried out, convulsed him greatly, and came out of him. And he became as one dead, so that many said, “He is dead.” **27**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up, and he arose. **28** And when He had come into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29** So He said to them, “This kind can come out by nothing but prayer and fasting.”

14 그들이 돌아와 보니 남아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15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모두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16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자. 17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병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18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 몸이 뻣뻣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9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21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22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 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23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24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25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병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26 그러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하였

다. 27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28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9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spend a little time reviewing last week's study. As you will remember we began chapter number 9.

The chapter opens with an account of Jesus' amazing transfiguration. This highly significant moment in the life of our Lord and saviour is reported in all three synoptic gospels. The exact mountain location for this event is not revealed in scripture. However, since Jesus and His disciples are in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it seems likely that it took place on Mount Hermon. This certainly qualifies as a “high mountain,” being the highest peak in Israel. Jesus took Peter, James and John with Him as witnesses to this event. These three made up Jesus' inner core. They appear to have been the three with whom He enjoyed the closest, most intimate relationships.

Whilst on the mountain the Lord Jesus was transfigured. As I said last week the Greek word used here to describe this transfiguration is *metamorphoō*. It is where we get our English word “metamorphosis.” This word describes a change in appearance, form, character or nature. In the natural world we use it to describe the transformation that caterpillars go through in order to become butterflies.

So what exactly happened during Jesus transfiguration? It appears as if the Lord Jesus was momentarily “transformed” or “changed” in order to reveal a part of His divine nature along with a manifestation of His glory. It was both an awe-inspiring, and terrifying experience for the disciples. Mark, who of course received his report from the eye witness Peter says that Jesus, “**clothes became shining, exceedingly white, like snow, such as no launderer on earth can whiten them.**” Luke tells us, “**His face was altered,**” and Matthew says, “**His face shone like the sun.**” This in itself would have made this an unforgettable experience but the event was further magnified by the appearance of two heroes from Israel's past.

The Old Testament prophets Elijah and Moses appear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the Lord Jesus. Last time I explained why it was these particular two prophets. Moses in the Jewish mind was always associated with the law. God after all had given it directly to him on Mount Sinai. Elijah was linked with the prophets. So Moses and Elijah represent the two divisions of the Old Testament; the law and the prophets. Mark doesn't tell us what they spoke about, but Luke does. He tells us they spoke about the Lord's forthcoming death in Jerusalem. Perhaps more broadly they spoke about all the Lord Jesus would soon accomplish.

It's at this point that Peter speaks up. Terrified by the proceedings, and really not knowing what he is saying he suggests building tabernacles, literally tents or huts so that they can stay or dwell on the mountain. Peter you see wanted this moment to last forever. The notion of Jesus going to Jerusalem to be killed was something he rejected. Far better, in his mind to stay in this glorious situation on the mountain.

The answer to Peter's suggestion comes from God the Father. He is present in the cloud that descends and overshadows them all. From the cloud the Father speaks and tells them that this is His beloved Son and that they are to listen to Him. Or to put it another way, the Father is endorsing Jesus as the Messiah, and affirming that what He has said is the divine plan. Therefore Peter or the other disciples are to accept God's plan and not stand against or reject it. When the cloud ascends the disciples find they are again alone with the Lord Jesus. He leads them down off the mountain telling them as they go that they are to keep these things quiet until after His death and resurrection.

It is during the walk down the mountain that they discuss some of the things in their minds. In particular they wonder what rising from the dead means. They also question Jesus about the scribes teaching that Elijah must come before the Messiah. They also wonder why, if Jesus is the Messiah they have not seen Elijah. Jesus tells them that Elijah has already come. He came in the form of the "spirit" of John the baptist. John came to announce the impending arrival of the Messiah and prepare the way. He was treated terribly and murdered. Therefore the disciples should not be surprised that the Messiah will also be rejected, treated with contempt and brutally killed.

Today we will discover what the remaining disciples were doing at the bottom of the mountain whilst they waited for Jesus to return.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마가복음 9 장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변모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의 생애에서 매우 중요한 이 순간은 세 개의 공관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산 위치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시므로 헤르몬 산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높은 산”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내적 핵심을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산 위에서 주 예수님은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변모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metamorpho* 입니다. 영어 단어 "변형 *metamorphosis*"가 거기서 유래됩니다. 이 단어는 외모, 형태, 성격 또는 성격의 변화를 설명합니다. 자연계에서 우리는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겪는 변형을 설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변모하신 동안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마치 주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일부와 신성의 일부를 나타내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변형" 또는 "변화"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목격자 베드로로부터 그의 보고를 받은 마가는 예수께서 **'옷이 빛나고 눈과 같이 심히 희게 되었으니 세상의 어떤 세탁공도 능히 희게 할 수 없더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마테는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을 것이지만,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과거에서 온 두 영웅의 등장으로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 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지난번에 왜 이 특별한 두 예언자인지 설명했습니다. 유대인의 마음 속에 있는 모세는 항상 율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그에게 그것을 직접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두 부분을 대표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Mark 는 그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는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Luke 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임박한 주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더 광범위하게 그들은 주 예수께서 곧 성취하실 모든 것에 대해 말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에 겁에 질려 무슨 말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한 채 베드로는 그들이 산에 머물도록 천막이나 오두막같은 성막을 지을 것을 제안합니다. 베드로는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다는 생각을 베드로는 거부했었습니다. 산에서 이 영광스러운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옵니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덮고 있는 구름 속에 계십니다. 구름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이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아버지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이 신성한 계획임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반대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이 떠 오른 후 제자들은 그들이 다시 주 예수님과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 오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이 일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그들은 마음속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또한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해 예수께 질문합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가 메시아라면 왜 엘리야를 보지 못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통해 왔습니다. 요한은 임박한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고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지만 끔찍한 대우를 받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메시아도 배척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 밑에서 예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14 And when He came to the disciples, He saw a great multitude around them, and scribes disputing with them.

We pick up the story with Jesus, Peter, James and John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We are not told where the remaining nine disciples had been during this time. Had they visited some of the local towns or villages? Or, had people heard they were in the area and sought them out whilst they waited at the foot of the mountain? Whatever the case a large crowd had gathered around the disciples due in no small part to the fact that there was a dispute going on. Nothing draws a crowd like a heated argument or dispute. The nine disciples were disputing or “reasoning” with a group of scribes. Did the Lord Jesus roll His eyes at this point and think to Himself, here we go again? Quite possibly, as we have repeatedly seen the Lord's work was constantly being disrupted by religious do-gooders. Let us read on.

14 그들이 돌아와 보니 남아 있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산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나머지 아홉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역 마을을 방문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산기슭에서 기다리다가 찾아간 것일까요? 어쨌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 주위에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열띤 논쟁이나 논쟁처럼 군중을 끌어들이는 것은 없습니다. 아홉 제자들은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논쟁하거나 “추리”하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시점에서 눈을 굴리시면서 속으로 또 시작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듯이 주님의 사역은 스스로 옳은 일을 한다고 여기는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방해받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5 Immediately, when they saw Him, all the people were greatly amazed, and running to Him,

greeted Him.

Jesus arrival on the scene causes great excitement. He was after all the one they really wanted to see. We might liken it I suppose to great singers of the past. They were always the star of the show, they were the real reason people came to see the concert. Elvis Presley for example always had a backing band. He was supported by a guitarist, a drummer, a pianist and backing singers. The other band members may have been fine musicians in their own right. But who did people really want to see? Elvis of course. They might have shown mild interest in the guitar player but all that interest vanished when Elvis appeared.

You realise of course I'm joking a little here. I'm not comparing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to a rock star. But I am trying to convey the effect He had upon these people. When they saw Him they ran over and greeted Him. It's a good reminder of how we should respond to the Jesus. Are we greatly excited to be in His presence, pray to Him or give up our time to serve Him? I certainly hope so.

Some have wondered whilst reading this verse exactly why the people were so amazed at the sight of Jesus. In particular the question is whether there was some "glow" or after effect of the transfiguration present upon Him. This is not without precedent. Remember how Moses is described when he returns from Mount Sinai after encountering God.

In Exodus 34:29 we read;

Now it was so, when Moses came down from Mount Sinai (and the two tablets of the Testimony were in Moses' hand when he came down from the mountain), that Moses did not know that the skin of his face shone while he talked with Him.

Was Jesus' face shining like Moses' face? Was it this other worldly effect that amazed people and had them running towards the Lord Jesus? I think it unlikely. My reasoning is as follows. The Lord Jesus wanted to keep the transfiguration event a secret. Peter, James and John you will remember were commanded not to speak about it. We also know that He wanted to minimise or manage the large crowds that surrounded Him. He didn't really want to draw people who were coming for the wrong reasons. People only coming because He was a miracle worker, or seeking Him out because He was different or strange. Neither of these aims would be well served if He was glowing like a lamp! Let us read on.

15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크게 놀라며 모두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크게 흥분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보고자했던 사람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거의 위대한 가수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쇼의 스타였고 사람들이 콘서트를 보러 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예를 들어 Elvis Presley 에게는 항상 보조 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타리스트, 드러머, 피아니스트 및 다른 가수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밴드 멤버들은 그 자체로 훌륭한 뮤지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엘비스였습니다. 사람들은 기타 연주자에게 약간의 관심을 보였겠지만 Elvis 가 등장하면 모든 관심이 그에게만 쏟아졌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약간 농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록스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끼쳤을 효과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자 달려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거나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에 크게 흥분합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확히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토록 놀랐는지 궁금해합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의 변모 이후에 어떤 "빛"이나 다른 어떤 효과가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후 시내 산에서 돌아올 때 어

떻게 묘사되었는지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34:29 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증거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가 그와 이야기할 때에 자기 얼굴의 광채가 나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처럼 빛났을까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주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게 만든 것이 이 세상적인 효과였을까요? 나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내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님은 변모 사건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죠. 우리는 또한 그분이 그분을 둘러싼 많은 군중을 최소로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이유로 그에게 사람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거나 그분이 다르거나 이상하기 때문에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이 램프처럼 빛나셨다면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16 And He asked the scribes, “What are you discussing with them?” 17 Then one of the crowd answered and said, “Teacher, I brought You my son, who has a mute spirit. 18 And wherever it seizes him, it throws him down; he foams at the mouth, gnashes his teeth, and becomes rigid. So I spoke to Your disciples, that they should cast it out, but they could not.”

Jesus goes directly to the scribes to enquire what is they are discussing with His disciples. If this event took place as I suspect in the region of Mount Hermon these scribes were a long way away from their natural base in Jerusalem. It shows I think how concerned they were by the activities of Jesus. We never actually learn the nature of their discussion. We can speculate that they were questioning the disciples over their inability to do God's work, and cast out the demon. We might wonder why, if they had all the answers they didn't cast out the demon themselves!

Before the scribes can give an answer someone in the crowd speaks up. This speaker is none other than the desperate father who lies at the centre of this controversy. He had obviously heard about this travelling rabbi (teacher) and his band of disciples. More importantly he had heard that they had the power to cast out demons. He was in need of such an exorcism. His son was possessed by a mute spirit. Or to put it more simply, the boy was unable to hear or speak. This is a significant detail. Jewish exorcists believed that in order to cast out a demon you had to know its name. Since this boy was unable to utter the demon's name this made exorcising it ver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his of course was from the Jewish exorcist's standpoint. It would not prove difficult for the Lord Jesus.

The father then explains in some detail exactly how the demonic entity manifested itself. The demon would overpower the child, throw him down, have him foaming at the mouth, gnashing his teeth and becoming rigid. Many biblical sceptics read this description and declare that the boy was merely suffering from epilepsy. The ancients, so these critics tell us were just unaware of this medical condition and therefore went with the supernatural explanation.

In fact epilepsy, or at least its symptoms was well known among the ancients. In both Greek and Roman culture it was regarded as a “sacred disease,” because they believed it was brought on directly by supernatural power. The word “lunatic,” or “moonstruck,” was often used to describe people in this state because the attacks were associated with the appearance of the full moon. This notion of demonic possession is a controversial topic for some.

There are some Christians who would prefer that all the supernatural elements of the bible be removed. This is just a denial of reality. We exist in the natural world, but are surrounded by the supernatural world.

So the question we are left with is as follows. Was the boy suffering with epilepsy, was he demon possessed or was it a combination of the two? What I think we can say with certainty is that these “epileptic type symptoms” were brought about as a result of the demonic possession. Perhaps this boy did suffer with epilepsy but this was utilised or harnessed by the demonic presence to further

torment this child.

The father had brought the child to the disciples with the hope, and probably expectation that they could heal him. Unfortunately they were unable to do so. What will the Lord Jesus do? Let us find out.

16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자. **17**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병어리 귀신 들린 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18** 귀신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면 아무 데서나 넘어져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면서 온 몸이 뻣뻣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직접 가서서 제자들과 의논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니다. 이 사건이 내가 추측하는 것처럼 헤르몬 산 지역에서 일어났다면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활동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들이 실제로 무엇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 귀신을 쫓아내는 일- 제자들을 심문하는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었다면 왜 그들 스스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서기관들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절박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 여행하는 랍비(선생님)와 그의 제자 무리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병어리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해서, 그 소년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세부 사항입니다. 유대인 퇴마사들은 귀신을 쫓아내려면 그 이름을 알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소년은 귀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대인 퇴마사의 관점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귀신의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정확히 설명합니다. 마귀는 그 아이를 압도하여 넘어뜨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며 굳어지게 했습니다. 많은 성서적 회의론자들은 이 묘사를 읽고 그 소년이 단지 간질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비평가들은 옛날 사람들이 이러한 질병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초자연적인 설명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사실 간질 또는 적어도 그 증상은 고대인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문화 모두에서 그것은 "신성한 질병"으로 여겨졌는데, 그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직접적으로 일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치광이 **lunatic**" 또는 "문스트릭 **moonstruck**"이라는 단어는 종종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증상의 발현이 보름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개념은 일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자연적 요소를 없애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계에 존재하지만 초자연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소년은 간질을 앓고 있었을까 또는 귀신 들렸을까, 아니면 둘 다이었을까? 확실한 것은 이러한 "간질 유형의 증상"이 귀신 들림의 결과로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아마도 간질로 고통받고 있었고 이 아이를 더 괴롭히기 위해 귀신이 그것을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료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려왔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알아보시다.

19 He answered him and said, “O faithless generation, how long shall I be with you? How long shall I bear with you? Bring him to Me.” 20 Then they brought him to Him. And when he saw Him, immediately the spirit convulsed him, and he fell on the ground and wallowed, foaming at the mouth.

Jesus reacts with profound disappointment and exasperation at this whole situation. After all they had witnessed Jesus doing the people around Him still exhibited great unbelief. It still seems as though they doubted His ability to do the amazing, or to be able to empower others to do the amazing.

To whom is Jesus expressing this sentiment? To the desperate father, to the argumentative scribes, to the nation of Israel or to His disciples who by now ought to have the faith necessary to cast out demons. He had after all given them power to do His work and cast out demons (Mark 3:15, 6:7). They had even successfully carried out numerous exorcisms (Mark 6:13). Perhaps the Lord's frustration is directed in some way at all these people.

However, the disciples in particular warrant special signalling out. With the training they had been given, and the gifts they had received He was especially disappointed in them. How often must God be grieved when we fail to use the spiritual gifts or resources He has given to us to bless others.

He calls for the boy to be brought to him. As soon as the boy is brought to Jesus we see a dramatic response from the demon. It knows into whose presence it is being brought. It realises that it's time tormenting this boy is coming to an end. It desires therefore to cause as much mischief and agony as it can before it is cast out. To this end the demon throws the boy to the ground and has him convulsing and foaming at the mouth. Let us read on to see what the Lord Jesus does next.

19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너희를 보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20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자 아이가 땅에 엎어져 뒹굴며 거품을 내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큰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이 감정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절박한 아버지, 논쟁적인 서기관, 이스라엘 민족, 또는 지금쯤이면 귀신을 쫓아내는 데 필요한 믿음을 가져야 할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막 3:15, 6:7). 그들은 심지어 성공적으로 수많은 퇴마를 행하기도 했습니다(막 6:13). 아마도 주님의 좌절은 어떤 식으로든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제자들에게 특별한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과 은사로 인해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나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슬퍼하실까요?

예수님은 소년을 그에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소년이 예수님께로 데려오자마자 귀신은 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 귀신은 자기가 누구에게 데려져온지 압니다. 그 귀신은 이 소년을 괴롭히는 시간이 끝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쫓겨가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해악과 고통을 주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소년을 땅에 던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주 예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21 So He asked his father, “How long has this been happening to him?” And he said, “From childhood. 22 And often he has thrown him both into the fire and into the water to destroy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have compassion on us and help us.”

Mark again demonstrates the great loving compassion of Jesus. One of the criticisms often levelled at medical professionals; doctors and nurses is that because they are so busy they cannot really develop intimate relationships with people. Patients may feel that they are not really seen as real people, but rather as problem cases to be solved, or even worse just numbers or statistics recorded on a computer. It's not that medical professionals don't care but rather that they don't have the time to really care as they might. Such a criticism could never be levelled against the Lord Jesus. Despite the clamour for His attention He was always deeply interested in people. This boy was not just another person to heal, rather he was a precious child that warranted care and attention.

How often are we dismissive of people. Aren't we so often caught up in our own affairs and interests that we do not want to take the time to listen and really be present with the person we are talking with. Let us look and learn from Jesus.

The Lord Jesus wanted to know how long the boy had been afflicted by the demon. Doctors collect case study notes when they examine their patients. They need to know this information in order to be able to prescribe the right cure. Here though such information is unnecessary for Jesus. He is not about to prescribe some form of treatment to cure this boy. So perhaps Jesus is questioning the father to help him realise his dire need.

The answer the Lord Jesus receives from the father is horrifying. This had been happening to the boy since childhood. The word the man uses here for “childhood” is the Greek term *paidiothen*, it normally means from “infancy,” or a “very early age.” So this boy had been suffering for some considerable time. We also learn that the demon had tried on repeated occasions to harm or destroy the boy. This of course reflects the hatred that Satan and his minions have for those created in God's image.

The father had approached the disciples with an anticipation that they would be able to cast out this demon. Their failure seems to have severely dented his confidence. He is now not sure that they do indeed have the power to help his son. He is even unsure as to whether the Lord Jesus can do anything. This is reflected in him asking, “If you can do anything (literally have the power to do something) then will you please help us.” how will Jesus respond? Let's find out.

21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22 귀신이 자주 아이를 불과 물 속에 던져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마가는 다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연민을 보여줍니다. 의료 전문가들에게 종종 쏟아지는 비판 중 하나는 의사와 간호사는 너무 바빠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신이 실제 사람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케이스로 간주되거나 컴퓨터에 기록된 숫자나 통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판은 결코 주 예수님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소년은 치유해야 할 또 한 명이 아니라 보살핌과 관심이 필요한 소중한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의 일과 관심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 하는데 시간을 쏟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배우도록 합시다.

주 예수님은 그 소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물어보십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세부사항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올바른 치료법을 처방하려면 이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정보가 예수님께는 불필요합니다. 그는 이 소년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형태의 치료를 처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가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깨닫도록 돕기 위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대답은 끔찍합니다. 이것은 어린 시절부터 소년에게 일어

났습니다. 여기에서 "어린 시절"에 대해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이디오텐(paiiothen)이며, 일반적으로 "유아기" 또는 "매우 어린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상당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악귀가 그 소년을 해치거나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증오를 반영합니다.

아버지는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었습니다. 제자들의 실패는 그의 확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 같습니다. 그는 그들이 실제로 아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주 예수께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지도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말 그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묻는 그의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

23 Jesus said to him,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24 Immediately the father of the child cried out and said with tears, “Lord, I believe; help my unbelief!”

Jesus focuses in on the father's use of the word “if.” It becomes not if Jesus has the power to help the boy but if the father believes Jesus has the power. We might rephrase this verse as,

"Believe in me, and your child shall be healed."

This is a very important distinction. We have all heard stories about the practices of so called “faith healers.” These people will often claim that they have God given power to heal the sick. When these “miracle healings” fail what do these charlatans often say to the person they were unable to heal? Sorry, but YOU lacked the faith to be healed. If only YOU had shown 100% belief or faith you could have been healed. They wrongly emphasise the amount of trust or faith that the person coming for help has. They actually have it back to front. It really should be about the faith or trust we have in the one bringing about the miracle. Do we really trust that the Lord Jesus has the power to perform a miracle. If we truly believe He does then we open up the possibilities of God's blessings.

Jesus tells the man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to him who believes. This of course does not mean that if I believe in God I am able to get Him to do whatever I want. This is exactly what some false teachers do teach. Rather, it means that a person who truly believes and trusts in God will set no limits or boundaries on what God can do. They will believe that God, if He wills can do the impossible. We spoke a few weeks ago about George Mueller. He was a man who believed without reservation that with God on His side all things were possible. God never let him down.

The father's heartfelt response here resonates deeply because it is so human. I have faith, he says, but it is weak, please Lord strengthen my faith. As fallen creatures this poor father's words to Jesus so often echo our own. Lord, I believe but how my faith waivers. Oh, how it ebbs and flows. At times my faith is strong, I have no doubts. At other times my faith is lacking, I have doubts.

Some read this verse and see in it a contradiction. How can one have belief and unbelief at the same time? Let me explain how this is not a contradiction. As Christians our faith is never at one end or other of the belief spectrum.

We are never at 0% faith or equally at 100% faith. At different seasons in our spiritual lives our faith slides up and down the scale. Perhaps when God feels close, our prayers are answered, and we feel blessed we climb higher up the scale. At other times when God appears distant, or we wrongly feel that God is ignoring our petitions we slide down the scale. So it's not a contradiction to say that we can have degrees of belief and unbelief co-existing at the same time.

As is so often the case C.H Spurgeon says it so well.

“While men have no faith, they are unconscious of their unbelief; but, as soon as they get a little faith, then they begin to be conscious of the greatness of their unbelief.”

When we feel low we should echo the plea of the father here. Lord, help my unbelief. Give me the faith to fully believe that you are good, loving merciful and kind in every circumstance. Give me the faith to know that you love me and will never leave or forsake me. Let us see what Jesus does next.

23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24 바로 그때 아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제가 믿습니다. 믿을 없는 제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소년을 도울 능력이 있는 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믿는 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자녀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위 "신앙 치료자"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치유"가 실패할 때 이 사기꾼들은 그들이 치유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 미안하지만 당신에게는 고침을 받을 믿음이 없다. 당신이 100% 믿음을 보였다면 당신은 치유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가진 신뢰나 믿음의 정도를 강조합니다. 그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기적을 일으킬 능력을 가진 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나 신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으심을 참으로 신뢰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능성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분이 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뜻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George Mueller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저 없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진심어린 반응은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깊은 울림을 준다. 나는 믿음이 있지만 연약합니다. 주님 제 믿음을 강하게 해주세요. 타락한 피조물인 이 불쌍한 아버지가 예수께 한 말은 종종 우리의 말과도 같습니다. 주여, 나는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지요. 밀물과 썰물처럼, 때때로 나의 믿음은 강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다가도 다른 때는 믿음이 부족하여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읽고 그 안에서 모순을 봅니다. 어떻게 믿음과 불신앙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모순이 아닌지 설명하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믿음의 스펙트럼에서 한쪽 끝이나 다른 쪽 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믿음이 0%도 아니고 100%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서 우리의 믿음은 때에 따라 위로 아래로 움직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축복을 받는다 느끼면 저울 추가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간청을 무시하신다고 잘못 느낄 때 저울 추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불신앙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C.H. Spurgeon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해줍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의 불신앙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간의 믿음을 갖게 되자마자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우리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간청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당신이 모든 상황에서 선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친절하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사랑하시고 결코 저를 떠나거나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하시는지 봅시다.

25 When Jesus saw that the people came running together, He rebuked the unclean spirit, saying to it, “Deaf and dumb spirit, I command you, come out of him and enter him no more!” 26 Then *the spirit* cried out, convulsed him greatly, and came out of him. And he became as one dead, so that many said, “He is dead.” 27 But Jesus took him by the hand and lifted him up, and he arose.

The crowd sense that something dramatic is about to take place. They hurry over to watch. The Lord Jesus must act quickly and provide deliverance to this boy. His concern in acting quickly is to try and avoid any greater degree of unwanted publicity. As I have said previously the Lord's miracles were never performed as acts of spectacle or show. This was why He refused to perform a miracle in front of Herod (Luke 23:8).

Today faith healers typically love the attention and adoration of the crowd. This is why they choose to “perform” in large auditoriums packed full of people. It's just a thought, but if they really did have a gift of healing why not visit developing countries or areas of extreme poverty and desperation. There they could find people who really would benefit from their healing touch. Interestingly this is something they never seem to do! Let us return to Jesus and the boy.

Jesus begins the exorcism by rebuking the demon. He then commands it to leave the boy, and very importantly never return. This demonstrates Jesus power and authority over the demonic realm. Unlike in previous exorcisms the demon violently asserts itself at Jesus' words. Realising it is defeated it desires to cause as much damage as possible before leaving. It cries out and then convulses the boy's body greatly before it exits. Upon the demons' exit the boy slumps to the ground and appears to the onlookers to be dead. Perhaps some in the crowd thought they were witnessing a tragedy. Jesus had tried to help but all had ended in failure. Now the boy was dead.

This of course was not the case. The Lord Jesus reached down, took the boy by the hand and helped him to stand. The demon was now gone. And that is where the boy and his father disappear from history. We might like to know that became of them. Did they devote themselves to Christ and live out their days thanking God for His mercy? Or over time did the memory of this moment fade away? Perhaps one day these questions will be answered. Let us find out how the episode ends.

25 예수님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에게 “병어리와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고 호통을 치셨다. 26 그러자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켜 놓고 나갔고 아이는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러나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그가 벌떡 일어났다.

사람들은 극적인 일이 막 일어나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구경하러 서둘러 옵니다. 주 예수님은 속히 행동하셔서 이 소년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신속한 행동을 하심에 있어 예수님의 관심은 원하지 않는 홍보를 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말했듯이 주님의 기적은 결코 구경거리나 과시로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가 헤롯 앞에서 기적 행하기를 거절한 이유입니다(눅 23:8).

오늘날 믿음 치료사들은 일반적으로 군중의 관심과 숭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대강당에서 '공연'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왜 개발도상국이나 극심한 빈곤과 절망의 지역을 방문하지 않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의 치유의 손길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텐데요.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

니다! 예수님과 소년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마귀를 꾸짖음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소년에게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매우 중요하게는 절대 돌아오지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악마의 영역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전의 엑소시즘과 달리 이 귀신은 예수의 말씀에 대해 난폭하게 반응합니다.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고 싶어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몸을 심하게 경련시킨 다음 빠져나갑니다. 귀신이 나가자 소년은 땅에 쓰러져 구경꾼들에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우려고 노력하셨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구나. 이제 그 소년은 죽었구나.

물론 그렇지 않았습시다. 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소년의 손을 잡고 그가 일어서도록 도왔습니다. 귀신은 이제 사라졌습시다. 그리고 소년과 그의 아버지는 이 이야기에 더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았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순간의 기억이 희미해졌을까요? 아마도 언젠가는 이 궁금증이 풀리겠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28 And when He had come into the house, His disciples asked Him privately, “Why could we not cast it out?” 29 So He said to them, “This kind can come out by nothing but prayer and fasting.”

The story closes with the Lord Jesus and the disciples alone in a house. In Mark’s Gospel, private gatherings in houses are typically the setting for further instruction and revelation for the benefit of disciples. On this occasion they have an important question to ask Jesus, but they do not want to ask it for obvious reasons in public. I’m sure that there was considerable embarrassment amongst them that they had been unable to cast out this demon. As I have pointed out before they were able to do this on other occasions. So the question is, what’s going on here, why were we not able to cast out this demon?

Jesus’s answer is illuminating. He tells them that, **“This kind can come out only by prayer.”** Now if you are anything like me the first question I ask here regards Jesus’ mention of “kinds.” Are there different kinds of demons, do demons have differing jobs or tasks, are some more or less powerful than others? Many over the years, and still today speculate on these things. The bible however is our only reliable source for information on demons, and it does not tell us a great deal. The bible does suggest that some demons are stronger or more wicked than others. In Matthew 12:45 we read

Then he goes and takes with him seven other spirits more wicked than himself, and they enter and dwell there; and the last *state* of that man is worse than the first. So shall it also be with this wicked generation.”

So, although we might like more information on this subject we must be content with what we have. Let us continue.

This “kind” of demon Jesus tells them will only come out with prayer and fasting. Interestingly this is the first injunction to prayer in the Gospel of Mark. Here Jesus instructs us about prayer in the context of faith. Most importantly, He connects prayer and fasting with spiritual power. The reason why prayer and fasting are essential components of our faith is that they draw us closer to the heart of God. They serve to align us with His power.

When we pray and fast we are, in effect demonstrating that we are wholly dependent upon God. Don’t just take my word for it. We see the importance our Lord and saviour placed upon prayer. His prayer life reflected even His dependence on the Father. So if the Lord Jesus recognised the vital importance of prayer so should we.

So why had the disciples been unsuccessful in casting out the demon? It’s very simple. They

believed that they had the power to cast out demons. They assumed that Jesus had given them this power and that it was now a part of themselves. This of course was foolish. The ability to cast out demons was still, and would always remain God's power. Its effectiveness came directly from Him. They were only able to cast out demons because God empowered them to do so.

Instead of praying, or preparing themselves by going to God the disciples acted on their own strength. The whole endeavour as we saw ended in failure. In their own strength they could not cast out the demon.

It's a lesson we should take to heart. In our own strength and ability we can do nothing. We are powerless without God's support and enabling. That is why prayer and fasting **MUST** proceed any task we attempt that is intended for God's glory.

It was an important lesson for the disciples to learn. It's one I'm sure that they remembered. We learn much through our failures and disappointments. Through this incident the disciples learned that in order to faithfully serve God they needed to rely totally and completely upon Him. That dependence came about through the spiritual disciplines of prayer and fasting.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again see Jesus teaching and instructing the disciples.

28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29**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귀신은 기도가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야기는 주 예수와 제자들만이 집에 함께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정에서의 사적인 모임은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유익을 위한 추가 교육과 계시를 위한 장소입니다. 이 경우에 그들은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상당한 당혹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다른 경우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왜 이번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런 종류의 것은 오직 기도로만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종류”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입니다. 다른 종류의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들은 각기 다른 일이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부 귀신들은 다른 귀신들보다 더 강합니까? 수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 추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이지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부 악귀들이 다른 악귀들보다 더 강하거나 더 사악하다고 암시합니다. 마태복음 12:45에 이르기를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도다 이 악한 세대도 이와 같으리라.”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계속합시다. 이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와 금식이 있어야만 나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의 맥락에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금식을 영적인 능력과 연결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우리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인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그분의 권능에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할 때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봅니다. 그분의 기도 생활은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의존성까지도 반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우 간단합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고 그것이 이제 그들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여전히 있었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효과는 그분에게서 직접 나왔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자신들을 준비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력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과 능력 없이는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 선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와 실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의존은 기도와 금식이라는 영적 훈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from today's passage of scripture

1 The power of faith

The main lesson we learn from today's miracle account is the power of faith to overcome the enemy. The nine disciples had failed because they had been careless and neglectful. Perhaps they had become prideful and overconfident in their spiritual walk. Maybe, due to past successes they thought that they were now strong and powerful. Easily able to take on and defeat the forces of evil. They were tragically brought crashing to the ground. The bubble of their pride was well and truly popped. They had neglected prayer and fasting. It was true that the Lord Jesus had given them authority over the demonic realm. But, and this is very important this authority was only effective if exercised by faith.

It is easy to examine the disciples and find fault in them. Let us turn the spotlight upon ourselves. Are we acting in a prideful or overconfident way? Are we so prideful to think that our successes are a result of our own abilities? Are we neglecting the spiritual disciplines and expecting that God will continue to bless us and give us victory? It may be time to pop our own balloons of pride. It is certainly time to humbly come before God and once again confess that we are nothing without Him. That we are wholly and totally dependent upon Him for everything.

1 믿음의 힘

오늘의 이야기에서 배울 주된 교훈은 적을 이기는 믿음의 힘입니다. 아홉 제자들은 부주의하고 소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적 행보에 대해 교만하고 과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 그들은 이제 그들이 강하고 강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악의 세력을 쉽게 물리치고 물리칠 수 있다고. 그들은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의 거품은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도와 금식을 소홀히 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마귀의 영역에 대한 권세를 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권능은 믿음으로 행사될 때만 유효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결점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거나 과신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공이 우리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만큼 자만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부심의 풍선을 터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 번 고백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2. Putting God in a box

Do we have any snake lovers listening? Snakes are definitely fascinating creatures. Did you know that a boa constrictor can grow to about 4 meters on average. The largest boa constrictor recorded measured 5.5 meters in length. That's a big snake. In North America, many people keep boa constrictors as pets. But here's an interesting fact, in captivity boa constrictors typically only grow to be between on average 1-3 meters in length. So why you ask does a wild boa constrictor grow considerably longer than one raised in captivity? It's because Boa constrictors grow in proportion to their container.

A boa constrictor in the wild has no limitations impeding its growth. But when it becomes a household pet, its growth is limited by the size of the aquarium it lives in.

In today's story the father of the demon possessed boy was putting a limit on what he thought Jesus could do. He was in effect putting Jesus in a box, or in line with our snake analogy, in an aquarium. He believed Jesus could do something, but there were limits. Rather like the boa constrictor in my example the man's faith could not grow more because he had imposed his own boundaries. As always we bring it around to our own lives. Are we, perhaps subconsciously putting God in a box? Are we imposing limits on what we think God can and cannot do based on our own levels of faith?

Have you ever said or thought the following.

- Nothing can resolve this situation.
- I'll never get over or recover from this.
- I'll never feel joy or happiness again.
- Why should I even bother

In our story today Jesus reminded the man that there are no limits on what God can do. It's a lesson not only directed at him but also at us. May we never forget how awesome our God is. May we never be tempted to try and limit what He can do by putting Him in a box.

2. Putting God in a box

혹시 뱀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뱀은 확실히 매력적인 피조물입니다. 보아뱀은 평균적으로 약 4 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기록된 가장 큰 보아뱀은 길이가 5.5m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큰 뱀입니다. 북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아뱀을 애완동물로 기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포획된 보아뱀은 일반적으로 길이가 평균 1-3 미터 정도 자랍니다. 그렇다면 왜 야생 보아뱀이 포로 상태에서 키운 뱀보다 훨씬 더 길게 자랄까요? 그건 보아뱀이 케이지에 비례하여 자라기 때문입니다.

야생의 보아뱀은 성장을 방해하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사는 애완동물이 되었을 때, 그 성장은 그것이 살고 있는 수족관의 크기에 의해 제한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는 수족관에서 사는 보아뱀의 비유처럼 사실상 예수님을 상자 안에 제한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에게 한계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봅시다. 우리는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상자 안에 담아두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수준에 따라 하나님이 할 수 있거나 없다고 제한을 두고 있지않습

니까? 다음과 같이 말하거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아무것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 나는 결코 극복하거나 회복하지 못할거야.
- 다시는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지 못할거야.
- 내가 왜 이걸 신경써야 해.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된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상자에 넣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한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